

보육교사 경험이 있는 MZ세대 영아 어머니들의 양육이야기¹⁾

안효진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²⁾

초록

본 연구는 보육교사 경험을 가진 M, Z세대 어머니 4명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그 과정 속에서 직면한 도전 과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 이루어졌으며, 비구조화된 개인 면담과 집단 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주제별 약호화 과정을 통해 주제어와 소주제어를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M, Z 세대 영아 어머니들은 발달 및 보육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자녀를 양육하며, 영아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이들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기 계발과 실천을 중시하였다. 자기 돌봄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지속적인 전문가로의 성장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였다. 셋째, M, Z 세대 영아 어머니들은 현실적인 양육서비스 제공을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로서 영유아 발달과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M, Z 세대 영아 어머니들이 이러한 전문성을 자녀 양육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동시에 자녀양육 경험이 보육교사로서 역할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키워드

보육교사, MZ 세대, 영아 어머니, 양육이야기

Manuscript received November 30, 2024 / Revision received March 4, 2025 / Accepted April 14, 2025

1) 이 논문은 2024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2) ahj0505@inu.ac.kr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4.0 International License

1. 서론

만하임(Mannheim, 1928/2013)은 세대를 단순한 연령 집단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사건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된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세대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특정 기간 동안 중요한 사건을 함께 경험하며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집단으로(최선헌, 2022), 각 세대는 경험했던 사회적,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서로 다른 가치관과 태도가 형성하게 된다(Kupperschmidt, 2000).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Prensky, 2001)라고 불릴 정도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980년대 이후 태어난 M, Z세대, 그리고 알파세대는 생각하는 가치, 태도, 라이프스타일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대별 차이는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났고, 자녀 양육의 의미와 방식 또한 예외가 아니다(이지원, 2017).

M, Z세대는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준비가 충분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자녀 수의 감소로 인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양육방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Howe & Strauss, 2000). M세대와 Z세대 간 차이도 존재하지만(정다운 외, 2022), 디지털 세대로 불리는 두 세대 모두 교육 수준과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실현과 효능감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정영혜, 양성은, 2011).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M, Z세대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에 주목하며,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효율적인 자녀 양육문화(이지원, 2017), SNS에 의존하는 육아방식(노인순, 김승희, 2020), 육아소비현상 (손미진, 2018; 손승영, 2014), 그리고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중시하며, 자녀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특징(Twenge, 2017)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M, Z세대 어머니의 전반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특정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의 양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직업이란 개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종사하는 일로 정의된다(네이버 사전, 2025, 2월 16일 인출). 이는 개인이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Super, 1957). 직업은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일정한 교육이나 훈련을 수반할 수도 있다(ILO, 2005). 따라서 직업 선택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그 동기는 다양하다. 보육교사를 직업으로 택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일정한 전문가 과정을 거친 보육교사는 아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육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김진선, 2012).

보육교사를 직업으로 가진 어머니들은 일반 부모와 달리, 근무시간에는 교육기관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신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중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미미, 서영숙, 2013). 이러한 보육교사 어머니들은 다른 직업군과 달리 직업적 정체성과 부모 역할이 겹치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육교사라는 직업적 특성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분리시키는지에 대해 관심을 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M, Z 세대의 보육교사에 대해 다룬 연구도 많지 않지만, 다룬 내용도 주로 개인 성장과 워라벨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M, Z 세대 보육교사의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존재하고(김용애, 장경은, 2022; 황수연, 2024; 홍지명, 2023), 이들이 보육현장에서 떠나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연구(장재현, 정가윤, 2025)가 있다. 이러한 M, Z 세대 보육교사의 특성을 통해 기존 업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말하며, 자녀를 갖고 일하는 것의 지속성이 어려움과 현장의 개선이 요구됨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러한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택한 M, Z 세대가 자신의 자녀를 가졌을 때 어떠한 양육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M, Z 세대 보육교사의 특성이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라는 직업을 택한 M, Z 세대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보육교사라는 직업적 역할을 하는 M, Z 세대 어머니의 시각으로 자녀양육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도전과제를 살펴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 경험이 있는 MZ세대 영아 어머니의 자녀 양육이야기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질적연구방법

본 연구는 보육교사 경험이 있는 MZ세대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질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질적 연구는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구성된 의미를 파악하며 서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술적 데이터를 통해 경험과 의미의 패턴을 도출하는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면담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개인의 사적 이야기와 반응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로, 연구 대상자의 경험, 태도, 가치관 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천수진, 2021). 주관적 경험과 내러티브를 강조하며,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영아를 양육 중인 보육교사 경험이 있는 MZ세대 어머니들의 양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비구조

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 방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조용환, 2009).

2.2. 연구참여자

보육교사 경험이 있는 MZ세대 어머니라는 해당 조건에 맞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목적표집 및 눈덩이 표집을 해서 4명의 어머니를 선정하였다.

표 1 참여자

참여자	출생연도	연령	직업	자녀
어머니 1	1987	38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대학원 공부를 병행 중으로, 4년제 대학의 아동가족복지학과를 졸업 후, 14년동안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주임교사로 근무하였다. 1년 3개월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한 상태이다. 양가 부모님의 지원 없이 남편과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	2세 남아
어머니 2	1987	38	현재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는 중으로 2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근무를 하였다. 결혼과 동시에 허니문 베이비로 인해 기관을 그만 두었다가 27개월이 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현재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	4세 남아
어머니 3	1991	34	현재는 가정주부로 있지만,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보육교사로 7년 동안 근무하였다. 임신 준비를 위해 퇴사를 하였다.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하였지만, 자녀가 4세 정도 되었을 때 다시 재취업을 할 예정이다.	3세 여아
어머니 4	1988	37	현재 보육교사 육아휴직 중으로, 4년제 대학의 아동가족복지학과를 졸업 후, 13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2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는 둘째 출산으로 인해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복직 예정이다.	5세 여아, 1세 남아

2.3. 연구절차

보육교사 경험이 있는 MZ세대 영아어머니의 자녀양육관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정하였다. 4명의 연구참여자 함께 2023년 11월부터 비구조화 면담을 시작으로 2월 29일까지 개인 당 3회, 함께 1회 총 13회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회당 30분~2시간까지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진행 상황과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비구조화된 그룹면담 및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후기에는 연구참여자들의 생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대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관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층성을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 자료수집 방법이면서 동시에 질적 연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전영국, 2017). 연구 참여자에게 개방적인 대화형식으로 구조화된 면담을 나누기도 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질문하는 면담을 하였다. 보육교사로서 경험, 자녀출산과 양육, 현재 경험하는 육아정책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개인 면담, 그룹 면담을 통하여 자녀양육 경험의 다양한 사례와 부모의 생각, 관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연구 동의를 얻은 후 면담을 하는 동안 녹음을 한 후 클로버 노트를 활용하여 전사를 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전사는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전사하였고 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과 질문 방향을 설정하였다. 면담자료를 분류하여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각 번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기 위해 주제별 파일을 만들며 ‘주제별 약호화(coding)’과정을 실행하였다. 면담 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메신저(카카오톡,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며 명확한 내용으로 전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분석은 먼저, 선행 문헌 분석 결과와 수집된 자료의 1차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선정한 후, 각 대주제별로 하위 주제들을 분류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거나 분리하기 어려운 주제를 통합시키는 등의 수정작업을 거쳤으며,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주제 목록을 작성한 후,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하는 작업을 거쳐 분석된 범주들을 하나의 파일에 정리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자주 언급한 단어를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과정이었다. 선정된 주제어는 먼저,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MZ 세대 영아 어머니들로, 양육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이들은 놀이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삶의 균형을 찾고 자기 계발과 성장을 실천하는 MZ 세대 영아 어머니들로, 자기 돌봄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그리고 지속적인 전문가로의 성장을 위해 능동적인 행동을 하였다. 셋째, 더 나은 자녀 양육 환경을 위한 MZ 세대 영아 어머니들의 제언이었다.

연구 윤리적인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 전사 자료를 확인시켜주고 분석 후 도출된 주제어나 범주화 등의 분석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자 검토과정(Member checking)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관점이 잘 반영되었는지 파악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시에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 속에서의 지속적인 자료 분석과 해석의 모든 과정 속에서의 의심과 관찰, 논증의 과정(나장함, 2012)을 통해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연구결과

3.1.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자녀 양육하는 MZ 영아 어머니

3.1.1. 자신감 있는 육아와 발달지원을 하는 MZ 영아 어머니

참여 어머니들은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로서 발달 지식과 양육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자녀에게 적절한 도움을 적시에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영아반은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내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 남편도 저랑 같이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하고 하다 보니 남편도 준비가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둘 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분유를 먹이고 뭔가 기저귀를 갈고 그런 상황에서는 둘 다 전혀 놀라움이 없었고,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어요(어머니 1).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아 처음에 봤을 때는 저도 두렵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아이가 커갈수록 자신감이 붙더라고요(어머니 4).

비록 영아반 교사를 직접 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에서 만났던 영아로 인해 영아의 발달적 특성이나 시기별 요구되는 발달 수준에 대한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여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을 익숙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발달 지식은 자녀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참여 어머니는 자녀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판단을 빠르게 하고 있었다.

언어가 조금 느렸는데...빨리 캐치해서 빨리 병원에도 가보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하면서 이제는 굉장히 거의 지금 수준으로 많이 이렇게 발달이 올라왔거든요... 조금 더 아이의 개인차에 따른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어머니 1).

전직 교사로서 유아발달을 배웠던 지식도 있고 현장에서 봤던 아이들 발달도 머릿속에 좀 그려보고 그 다음에 같이 놀이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이가 발달 수준에 빗대어 생각해보며 아이의 발달 정도를 파악해가고 있어요. (제 아이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언어부분에서 조금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소근육이 조금 안되는 것 같아요...영유아검진에서도 언어쪽으로 심화발달평가 권고가 나와서 나도 언어자극 많이 해주려고 해요. 요즘은 색 관련된 그림책이나 놀이로 조금 많이 풀어보려고 하는데 아이가 엄마가 자신을 학습시키려고 놀이를 한다는 것을 알고 안 하려고 해요. 책도 안 보려고 하고, 다른 책 읽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때 이후로는 놀이상황에서 우연히 색과 관련된 것이 나왔을 때 한번씩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극을 주고 있어요(어머니 3).

자신의 자녀가 언어적으로 발달이 늦어짐을 인지하며, 빨리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이러한 어머니의 결정이 적절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발달 단계 및 지식으로 인해 자녀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에 스스로 만족스러운 부모 역할을 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3.1.2. 놀이의 가치를 강조하는 MZ 영아 어머니

참여 어머니는 놀이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놀이가 자녀를 표현하는 방법이자, 그들의 삶 자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직 서툴지만, 놀이로 많이 표현된다고 생각해요...놀이는 생각과 기분, 느낌을 말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 것 같아요(어머니 3).

아이가 미디어를 보지 않는 모든 순간인 것 같아요. 생활도구를 사용하고, 동생과 대화하고, 놀잇감을 활용하는 것 등 모든 것이 놀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아이의 궁금증이나 질문에 대해 아무리 단순한 내용일지라도 최대한 성심성의 것 설명해 주려 하고, 아이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 대신 해주기보다는 그 방법을 알려주며 수행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있어요 (어머니 4).

어머니3처럼 어린 자녀가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놀이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자녀의 비언어적 놀이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아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유사하게 어머니4 역시 자녀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해 부모로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어머니들은 자녀의 놀이 행동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었다. 자녀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자녀의 궁금증을 함께 찾아보는 것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 노출시키는 것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속에서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가면서 버스랑 트럭 같은 것을 찾아보고...카시트 옆에 장난감이나 책을 제공하기도 하고...공원에서 아이가 신나게 뛰어놀 수 있고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공원에서는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 있구요(어머니 1).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아이가 한 번 경험한 것보다는 두 세 번 경험한 것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함께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자동차나 레고 놀이를 좋아하고 남자 아이다보니 뛰는 걸 좋아해서 놀이형 키즈카페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체험은 주로 주말에 문화센터를 통해 하기도 해요(어머니 2).

아기들 대상으로 한 공연이 있었어요. 행위예술 같은 것이었어요.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라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때 아이가 한참 낮을 가리는 시기여서...참여를 잘 못했어요. 그래도 새로운 것을 봤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어머니 3).

참여 어머니들은 자녀를 다양한 맥락에 노출시키고, 그 속에서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었다. 자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이나 키즈카페, 혹은 문화체험장을 방문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공간 속에서 자녀들이 또래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놀이 기구나 놀잇감을 만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참여 어머니들은 자녀가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다양한 공간에서 경험을 중시하고, 적절하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 어머니는 익숙한 공간을 교육적 공간으로 만들어 자녀에게 놀이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다. 어머니 1과 같이 자동차 속에서도 자녀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같은 종류의 차를 찾아보는 놀이를 하면서 일상 속에서의 놀이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에서의 행동들은 참여 어머니들의 놀이의 중요성과 놀이가 자녀 교육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음을 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린 영아아기에 자녀의 놀이와 발달의 연결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연령이 증가될수록 이러한 놀이만으로 충분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 대해 완전하게 공감하지 않았다.

놀이를 통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취학 전에는 놀이 외 별도의 학습도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어머니 4).

다른 어머니 역시 연령이 커지면 자녀에게 ‘웅진’과 같은 학습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독서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어린 자녀에게는 놀이의 의미나 중요성이 온전한 발달을 위해 의미 있게 다가가는 반면에 자녀의 연령이 커지면 놀이 경험만이 아니라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별도의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3.2. 삶의 균형을 찾고 성장과 자기 계발을 실천하는 MZ 영아 어머니

3.2.1. 자기 돌봄을 행하는 MZ 영아 어머니

자기 돌봄이란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수행하는 의도적 활동이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자율적 관리 과정(Orem, 1991)으로 참여 어머니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돌봄 및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었다. 상황에 따라 누가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지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은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다.

육아휴직을 할 때는 제가 주로 했지만, 복직을 한 후에는 신랑이랑 당번을 정해 둘이서 번갈아가며 자녀 양육을 담당해요. 당번이 아닐 때는 좀 자유롭게 친구도 만나고 그래요(어머니 1).

저녁에는 신랑이 퇴근하고 오면 도와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엄마인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죠(어머니 3).

아직은 휴직 중이기 때문에 주로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남편도 10시는 다 되어야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주로 제가 많이 하고 있죠. 이상적으로는 부부가 모두 균등하게 공동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혹 물리적인 시간 등을 이유로 부부 둘 중 한 명이 좀 더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도 관심과 정보, 소통 등을 통해 주 양육자만큼이나 아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어머니 4).

참여 어머니들은 부부가 균등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양육을 이상적인 방식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 내용과 방법이 꼭 균등하게 나타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 자녀 양육을 하기도 하고, 남편의 직업 특성(늦은 퇴근 시간 등)은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심과 소통을 통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양육에서 역할 분담이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책임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부부 간 균등한 역할 분담을 지향하며, 양육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여 어머니들은 부부 간의 공동양육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자녀 돌봄 지원을 받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공동체 활동이다. 이들은 온라인 공동체나 오프라인 공동체로부터 자녀 돌봄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i누리 홈페이지, 육아종합센터 홈페이지 등 양육 관련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맘카페, 자녀와 유사한 연령의 자녀를 둔 블로그를 방문하여 필요한 육아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여 어머니들은 무조건적으로 SNS의 정보나 지식을 믿기보다는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나름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고자 하였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오히려 광범위한 정보를 얻는 게 너무 힘들 때도 있어서 또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지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어머니 3).

저도 전에는 인스타나 그런 것도 많이 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인스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객관성이 없다 보니 굉장히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거의 이제는 그냥 논문이나 전공책을 보고, 아니면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들끼리 이야기 물어봐요. 그게 가장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전공을 한 사람들끼리 생각을 들으면서 교류하고 정보 얻는 게 좀 가장 정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원 선생님들이랑 이제 논문 같이 쓰신 분들이랑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계속 학교 선생님들이랑 굉장히 자주 그런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요(어머니 1).

비록 디지털 플랫폼 활용이 활발하지 않더라도 자녀 양육 공동체를 형성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자녀 양육 공동체 모임은 부모가 서로 대면하여 자녀 양육에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고, 자녀들에게는 놀이와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여 어머니들의 또 다른 자녀 돌봄 지원을 받는 방법은 키즈카페를 활용하는 것이다. 키즈카페는 비록 비용을 지불하지만, 이 비용이 어머니의 양육으로부터 자유함과 시간을 확보해주며, 동시에 다른 부모들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장소로 자녀 양육의 효율성을 극대화를 만들어 주고 있다.

집에서 아이랑 놀이를 하다 보면 해야 할 집안일이 자꾸 보여요. 그러다 보면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는데 일단 밖으로 나가면 집안일이 보이지 않고 아이와 집중해 놀이할 수 있다 보니 키즈카페나 실내 놀이공간을 찾는 편인 것 같아요(어머니 3).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집안일이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그런 면에서 편함이 있고, 집이 어질러 지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 심적으로 편안해요. 또 키즈카페의 모든 공간이 대체로 안전하다 보니 돌보기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 보면 아이가 미디어에 의존하는 시간이 늘어 부모가 마음이 불편한데 키즈카페에 가면 아이가 미디어 없이 수 시간을 즐겁게 놀아서 좋아요(어머니 4).

참여 어머니들은 키즈카페나 문화센터를 활용하며 자녀들에게 놀잇감을 안전하게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참여 어머니는 놀이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지만, 놀 함께 놀아주는 것의 한계도 느끼기 때문에, 또 다른 공간을 찾고 있었다. 이곳은 어머니들에게 편의 장소이자, 다른 어머니들과 만남 속에서 양육 정보를 교류하며 양육에 대한 고민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장소였다.

3.2.2. 성장을 위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MZ 영아 어머니

참여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은 자기계발의 욕구를 갖게 하였다. 자녀 출산 및 양육과정의 경험은 어머니들에게 오히려 보육교사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아기 낳기 전에는) ‘제가 이런 걸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어머니께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하셨어요. 그때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셨으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좀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보시고… ‘니가 애를 키워봤니?’ 이런 눈빛으로 많이 보셨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저보다는 나이가 좀 이제 어르신 분들이시다 보니 그래도 뭔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했지 그러면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네요’라고 말하면 어머니들이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세요… 어머니들이 저에게 ‘주말에 뭐하셨어요?’ 혹은 ‘~를 위해 어디를 가세요?’ 같은 질문을 자주해요. 아마 같은 연령의 자녀를 양육해서 그런지 부모님들이 육아 관심사, 육아에 대한 고민 등을 자주 질문하세요. 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어머니 1).

제가 모르니까 부모님들의 어떤 반응에 요구에 반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수시로 인천 육아종합센터, 부평 육아종합센터 사이트를 방문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도 AI, 코딩,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신청해서 들어요…부모교육이나 교사 교육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어머니 4).

참여 어머니들은 교사이자 동시에 학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자녀 또래 어머니들에게 양육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1은 현재는 간단하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모아서 지인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추후에는 자녀양육에 관심있는 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며 유사한 경험의 다른 어머니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조금 더 시간 할애를 하고자 한다. 어머니 4는 AI, 코딩, 메타버스 등 새로운 지식에 대한 배움을 통해 부모들에게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들과 효과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소통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자녀 출산 이후 집에서 자녀 양육만을 온전히 하고 있었지만, 집에서 육아만 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나태하게 만들고, 게을리지게 한다고 인지하여 다시금 현장으로 가서 자신의 일과 양육을 함께 하고자 시도를 하였다.

아이가 27개월쯤 되었을 때 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영아 보조를 하다가 지금 직장에 들어와 계속 일을 하고 있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우울했어요.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가 무기력해지고 게을리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 성격이라서 많이 좀 움직여야겠다 싶어서 일을 하기 시작

했어요. 하지만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 풀타임으로는 일을 못 해서 보조교사를 선택하게 되었어요(어머니 2).

아이와의 애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아이가 어렸을 때는 내가 함께 있어주면서 3살까지는 내가 키우고 싶었어요... 이후에 기회가 되면 현장으로 돌아갈려구요(어머니 3).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군과 달리 자녀 출산 이후에도 다시금 보육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문턱이 낮다. 자녀 양육 등의 여건 상 풀타임 교사로 일하는 것이 어렵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하면 또 다시 풀타임 교사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보육교사로 일했던 경력과 자녀를 양육했던 경험은 참여 어머니들로 하여금 개인적, 직업적 역량을 키우고, 자기 성장과 계발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다.

3.2.3. 현실성 있는 양육 서비스를 기대하는 MZ 세대 영아 어머니

참여 어머니는 다양한 양육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 환경 상황에서는 잘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단축근무, 출산 및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으나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부모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제도들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것이 관리감독도 잘 이루어져 제도 활용이 자연스럽게 당연해지는 시대가 오면 좋겠어요(어머니 4).

부모가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권고가 아니라 정책으로 결정되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주5일제 시행하면서도 얼마나 반발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해두면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일과 양육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언제 아파서 쉬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휴가를 길게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방학 때도 우리 아이 혼자 어린이집에 가기도 하고...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었죠(어머니 2).

참여 어머니들은 다양한 양육 서비스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가 제도 활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었다. 이들은 제공되고 있는 제도를 현실성 있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간, 즉 긴급하게 발생하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시간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4. 논의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보육교사 경험을 가진 M, Z세대 어머니 4명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그 과정 속에서 직면한 도전 과제를 다루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 경험을 가진 M, Z 세대 영아 어머니들은 발달 및 보육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자녀 양육을 하고 있었다. 이는 부모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존의 영아 어머니들의 양육 경험(이자형, 2005)과 다른 결과로, 본 연구에 참여 어머니들은 보육교사 경험이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 비록 영아반을 직접 가르치지 않았지만, 습득한 발달적 지식, 다양한 연령과 발달 수준의 영유아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참여 어머니들이 느끼는 감정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발달지식은 자녀의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참여 어머니들 중 자신의 자녀의 언어 발달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발달 기준보다 늦게 나타남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전문가를 스스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김진선(2012)의 연구처럼 참여 어머니들에게 보육교사 경험은 자신의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참여 어머니들 역시 자녀의 놀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교육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던 것처럼 참여 어머니들도 영아의 놀이는 영아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며, 영아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김남희, 2019). 더 나아가 참여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가 하는 비언어적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일상 생활 속에서 자녀의 놀이 친구가 되어 자녀와 놀이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자녀의 언어적, 비언어적 놀이행동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자 참여 어머니는 발달지식과 맥락 속 지식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보육교사 경험을 가진 어머니가 놀이 중요성을 중시한다는 조아라, 임홍남(201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자녀에게 ‘안돼.’ 라는 반응을 통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규범이나 규칙을 알려주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자녀가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공간적 자유를 제공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해 그 행동을 통제한다는 홍수경(2010)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때로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지낸 자녀와의 짧은 만남 속에서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한편, 참여 어머니들은 놀이가 자녀의 온전한 발달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놀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영아기에 해당하는 어린 연령에는 놀이가 적합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큰 연령의 자녀에게는 놀이 그 자체만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비록 개정누리과정 속에서 강조하는 놀이가 교육내용이자 방법이라는 것과 놀이의 다양한 가치들 중 부분적으로 놀이의 특성을 받아드리고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놀이에 대한 한정된 가치나 이전부터 강조되어 온 놀이에 대한 고착화된 고정관념과 갈등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깨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다는 김숙령과 여인우(2019)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참여 어머니들은 자기 자신으로서, 어머니로서, 때로는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자기 계발과 실찬을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이들 모두는 대학교를 졸업 후 7년 이상 보육교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후 결혼 및 출산을 하며 현재 4명 중 3명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보육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1명은 현재 전업주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추후 다시 교육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참여 어머니들의 처한 상황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들 모두는 스스로 자신들이 보육교사로서 전문가라는 의식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참여 어머니들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행위주체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 양육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디지털 세대답게 다양한 놀이공간, 놀잇감, 자녀 건강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 주제의 정보를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수집 후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었다(김송이, 김한나, 2017; 노인순, 김승희, 2020; 이지원, 2017). 이는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로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여 스마트폰 사용과 SNS 사용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모습이다(정영혜, 양성은, 2011). 그러나 참여 어머니들은 이러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교사로서 배우고, 알았던 전문적인 지식이나 양육 경험을 활용하여 비판적 시각으로 해당 지식과 정보의 적절성을 변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플랫폼에 나와 있는 지식과 정보에 대해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로 해당 정보들을 검토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특히 자기 이외의 또 다른 보육전문가 혹은 유아교육 전문가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 플랫폼에 나와 있는 지식과 정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고, 이를 다른 어머니들과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참여 어머니들의 적극성은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보육교사로서, 부모로서의 역량 개발을 하길 원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커뮤니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부모교육이나 교사교육의 기회를 찾아 보육교사로

서의 전문지식과 학습의 기회를 획득하고 있었다. 부모인 동시에 보육교사라는 역할을 하는 자신의 정체성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잡는 동시에 전문 보육교사로서 자아실현과 효능감을 추구하고 있었다.

참여 어머니는 이러한 다양한 역할과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업무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자기돌봄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의 자기돌봄 형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녕을 위해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부부가 함께 공동양육 방식을 택하는 것이었다. 비록 참여 어머니의 처한 상황에 따라 부부가 자녀 양육을 위해 할애하는 방법, 시간, 내용 등에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부부가 함께 가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며 자녀 양육을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 속에서 참여 어머니는 스스로 자신의 쉼을 가질 수 있게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자기 돌봄은 필요하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키즈카페, 문화센터 등의 장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공간들은 단순히 자녀를 위한 공간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공간으로 작용된다. 키즈카페나 문화센터는 자녀에게 새로운 놀이감과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어머니들에게도 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고, 이를 위해 어머니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김민우 외, 2017; 손미진, 이연선, 2019). 지불한 시간의 비용만큼 어머니는 자녀의 놀이 파트너로부터, 양육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세 번째의 자기 돌봄은 대면 공동체 모임을 언급하고 있었다. 참여 어머니들은 SNS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온라인 공동체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는 늘 긍정적인 경험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참여 어머니는 함께 유아교육과나 아동복지과 학부나 대학원을 다녔던 친구나 동료, 조리원에서 만난 동료 등 특정한 경험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만든 양육 공동체가 자기 돌봄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밝히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 경험을 가진 또 다른 보육전문가 혹은 유아교육 전문가들과의 만남 속에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플랫폼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영아 교육 및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나 자신으로서의 삶,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보육교사로서의 삶 등을 고민해볼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 어머니들은 보육교사로서의 삶, 부모로서의 삶, 그리고 온전한 나만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을 그려가 보고 있었다.

셋째, 참여 어머니들은 현실적인 양육서비스 제공을 기대하였다. 참여 어머니들은 다양한 양

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하거나 남성의 양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예: 육아휴직 제도 강화, 근로시간 단축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부부 모두가 양육의 책임과 즐거움을 함께 나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 경험을 가진 MZ세대 영아 어머니들의 양육 이야기를 탐구함으로써, 현대 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육관의 특징, 도전 과제, 부모로서의 정체성 전환을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지만,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4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는 보육교사로서의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앞에서 구체적인 어머니들의 경험도 일을 하기도 하고, 휴직을 하는 경우로 매우 다른 양육 상황이고, 차이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통의 경험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였다. 이 지점은 본 연구의 해석의 다양성의 한계나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또한 보육교사 경험을 가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직업군의 부모나 아버지의 입장을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의 MZ세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양육관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M, Z 세대 보육교사이자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생각을 다루었다는 것이다. 각 세대의 의식 및 태도, 가치관, 행동양식 등은 이전 세대와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다른 세대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특히 보육교사로 영유아 발달과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M, Z 세대 영아 어머니가 어떻게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직무 스트레스나 근무 환경이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녀 양육 경험이 보육교사를 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남희 (2019). 놀이의 특징과 교육적 가치. **윤리교육연구**, 52, 253-276. DOI : 10.18850/JEES.2019.52.09
- 김민우, 이연선, 강승지 (2017). 유아 공간 연구 동향 분석. **한국유아교육학회**, 37(4), 479-491. DOI : 10.18023/kjece.2017.37.4.020
- 김송이, 김한나 (2017). **맞춤형 보육 실시에 따른 보육환경 대응성 강화 방안 마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Retrieved from <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policyResearch.do?&schM=view&page=20&viewCount=10&id=2569&schBdcode=&schGroupCode=#none>
- 김숙령, 여인우 (2019). 영유아 주도적 놀이를 지원하며 경험하는 보육교사의 갈등과 변화.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0(3), 247-266. DOI : 10.22154/JCLE.20.3.9
- 김용애, 장경은 (2022). 어린이집 교원의 직업 가치관과 전문성 인식 및 갈등관리 전략의 세대별 차이 분석.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7(2), 5-26. DOI : 10.20926/ETPIYC.2022.7.2.1
- 김진선 (2012). 유아교육·보육전공자의 자녀양육 체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보육학회지**, 12(2), 121-145.
- 나장함(2012). 교과교육과 수업 연구에서의 질적 접근: 질적 연구 샘플링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53, 75-104. DOI : 10.17253/swueri.2012.53..003
- 노인순, 김승희 (2020).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SNS 활용에 관한 질적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311-335. DOI : 10.22251/jlcci.2020.20.23.311
- 손미진 (2018).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상업실내놀이공간에 대한 경험 연구: 키즈카페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미진, 이연선 (2019). 상업실내공간 키즈카페 경험을 통해 본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실존적 육아의 의미. **교육혁신연구**, 29(1), 139-161. DOI : 10.21024/pnuedi.29.1.201903.13
- 손승영(2017). 양육미혼모의 당사자조직 참여 경험과 인식 변화. **여성학연구**, 27(1), 35-66. DOI : 10.22772/pnujws.27.1.201702.35
- 이자형(2005). 영유아기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부모자녀건강학회지**, 8(1), 3-16.
- 이지원 (2017). **동시대의 비동시대성에 의한 에코세대 어머니의 자녀양육**.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현, 정가운 (2025). MZ세대 초임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사직 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보육지원학회**, 21(1), 83-103. DOI : 10.14698/jkce.2025.21.01.083
- 전영국(2017). 창의성 신장을 위한 로봇 활용 교육에 관한 질적연구 방법 탐구. **질적탐구**, 3(2),

101-131.

정다운, 반진옥, 문지민 (2022, 02. 11). 10대·40대를 왜 묶어? 닮은 듯 다른 MZ세대. **매경이코노미**.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2&no=128454>

정영혜, 양성은 (2011). 전문직 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질적 연구: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1-19.

조아라, 임홍남(2017). 보육교사의 이상적 자녀 양육관에 관한 유아교육적 함의 탐색. **유아교육연구**, 37(3), 461-488. DOI : 10.18023/kjece.2017.37.3.021

조용환 (200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천수진 (2021). **만 2세 영아반 교사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의미 탐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미, 서영숙 (2013).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동료교사와의 갈등 원인 및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1), 221-239.

최셋별 (2022, 5). 한국의 MZ세대 이야기: 기성세대의 상식을 넘어서다. **지식의 지평**, (32), 63-76.

홍수경 (2010). **유아의 놀이에 관한 부모의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지명 (2023). 유아교사의 세대별 직업 가치관 및 갈등관리 특성의 차이 분석. **한국교육논총**, 44(3), 313-329. DOI : 10.55152/KERJ.44.3.313

황수연 (2024). **보육교사의 직업가치관과 일의 의미 및 조직공정성에 대한 세대 간 차이 분석**.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owe, N., & Strauss, W. (2000). *Millennials rising: The next great generation*. Vintage Book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05). *ILO thesaurus: Labour, employment and training terminology* (6th Ed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Kupperschmidt, B. R. (2000). Multigeneration employees: Strategies for effective management. *The Health Care Management*, 19(1), 65-76. DOI: 10.1097/00126450-200019010-00011

Mannheim, K. (1928). *The problem of generations*, 이남석 역 (2013). **세대문제**. 책세상

Orem, D. E. (1991). *Nursing: Concepts of practice*. Mosby.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5), 1-6. DOI: 10.1108/10748120110424816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vocational development*.

Harper & Brothers.

Twenge, J. M. (2017). *iGen: Why today's super-connected kids are growing up less rebellious, more tolerant, less happy—and completely unprepared for adulthood*. Atria Books.

Parenting Stories of MZ Generation Infant Mothers with Childcare Teaching Experience

HYOJIN AHN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xperiences of and challenges faced by four mothers from Generations M and Z, who had experience as childcare teachers, in raising their children. Adopting a qualitative desig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unstructured individual and group interviews, and coded by theme to identify the key topics and subthemes.

The results reveal that, first, mothers from Generations M and Z raised their children with confidence based on their deep understanding of child development and childcare,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fant play. Second, they prioritized self-development and practical applications while maintaining a balance in life. They adopted effective methods for self-care and stress management, and actively engaged in continuous professional growth. Third, they expected practical and realistic childcare services. Overall,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how these mothers, as childcare teachers with specialized knowledge of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and education, apply their expertise in raising their own children. Finally, it reveals how their childcare experiences influence their professional roles as childcare teachers.

Keyword

Parenting Stories, MZ Generation, Mothers with Experiences as Childcare Teachers